

에 베 소4

Now Paul begins the fourth chapter again with the reminder that he is a *prisoner of the Lord, and I beseech you, [I beg you, I implore you] that you walk worthy of the vocation wherewith you are called (4:1).*

바울은 다시 그가 주 안에서 갇힌자임을 상기 시키면서 4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4:1).

Now, notice this is the first mention now that Paul makes of your response to God. He has spent three chapters telling you what God has done for you, of what God has given to you, of what God has provided for you. He has spent three chapters unfolding the glorious mysteries of God's love and grace and goodness. How God has reached out to you, you Gentiles who were once alienated and far away, and He has brought you near. Now after spending the three chapters telling you all that God has done, now he turns around and he says, "Now you walk worthy."

이제,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것임을 유의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무려 세장이나 썼습니다. 그는 세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전에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가까이 이끌어 주신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일을 석장에 걸쳐 설명한후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고 말합니다.

One of the problems in the church is that we have been emphasizing the walk first. We have been trying to get people to walk before they even know how to sit. Paul gets us firmly seated in Christ in heavenly places and now he says, "Now walk. You learned how to sit, now walk." In a little while as we get to the sixth chapter, he is going to say, "Now stand."

교회의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가 먼저 행하라고 강조해온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확고히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이제 걸으라. 너희가 앓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걸으라” 고 합니다. 잠시 후에 6장에 가면 그는 “이젠 서라” 고 말할것입니다.

And so as another author of Ephesians has divided it, he spent three chapters telling you of the wealth and of the riches you have in Christ. Now he is going to spend a couple of chapters telling you about the walk that you should have. And then he will spend the last chapter telling you about the warfare that you are in. So the wealth, the walk and the warfare of the believer. Ruth Paxson divides the book of Ephesians that way. Watchman Nee divides it in sit, walk, stand.

에베소서 of 다른 한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바울이 첫 세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가진 부요함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두어 장에 걸쳐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말할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전쟁에 대하여 말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요함과 행함과 전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룯 팩슨 (Ruth Paxson) 은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엣치만 니 (Watchman Nee) 는 앓는것 (좌) 과 행하는것 (행) 과 서는것 (참) 으로 구분했습니다.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od's work for us is, first of all, mentioned before our response to God. So opposite to the religions which teach man to do his work in order that God might respond to him. If we are in that works-response, I work that God might respond syndrome, we will never have the full relationship with God that He desires to have, nor will we ever enjoy the riches that God wants to bestow upon us.

그러나 무엇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일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보다 먼저라는것을 주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응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와는 정 반대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반응의 관계에 있다면 내가 행동하여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실까 아닐까 하는 증세가 생기며 우리가 갖고 싶은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이루어 질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요함도 즐길수 없게 될것입니다.

Because our works are always going to be failing and feeble. It is God's work that matters, not mine. It is my response to God which is important, not trying to get God to respond to me. God has already initiated, and God is the initiator; man is the responder. So many times man seeks to reverse that in the

preaching, making man the initiator and God the responder. Such is not the case. Such is not the gospel. There is no gospel in that. The gospel is that God initiated: God so loved that He gave, and that man responds.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약하고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 반응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신다고 꺼꾸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셨고 인간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I am responding to that constraining love. So any work that I try to do for God that does not come from a responsive base is unacceptable. Any work that I try to do to gain favor, any work that I try to do to gain merit, to gain points, to gain righteousness is of no avail. It is only that work that flows freely as I am responding to God and His grace and His goodness to me that has any real eternal merit or value. We need to get this correct theology or else we are going to really be missing out on all that God is wanting for us and wanting to do for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는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에게 대한 반응을 기초로 해서 오는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은총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나 점수를 얻기 위해서나 또는 의로워 지려고 하는 일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자유롭게 흘러 나오는 그 일 만이 영원한 칭찬과 가치를 받게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것이냐 우리를 위하여 하시려는것을 다 놓지게 됩니다.

You do not initiate the relationship with God. He has initiated it. You need to respond to it. You cannot make God love you more. He loves you supremely. You need to respond to it.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수 없습니다. 그 분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 하십니다. 당신도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합니다.

When I am responding to God then I am not really getting all puffed up in my works and boasting in them and going around and bragging about all that I have been doing for God.

내가 하나님 반응을 보일때 나는 내가 한일로 교만해 지지 않으며 뽑내지 아니 하고 두루 다니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All I am doing is responding to love that is...I just can't handle. Overwhelming love, I respond to it. So it isn't, "Oh, I have given so much for God or I have sacrificed so much for the Lord. You can't believe how much I have given to the Lord." No, no, no. The person who has the true relationship with God is going around saying, "You can't believe all that God has done for me. I can't believe His goodness. Listen, you will never believe what the Lord did for me this week."

내가 하는 모든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것이며 그것은 ...내가 감당 할수 없습니다. 나는 넘치는 사랑에 나는 반응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것을 희생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바쳤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돌아 다니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것을 당신이 믿지 못할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믿워지지 않아요. 들어 보세요, 주님이 입번주에 내게 행하신 일을 정말 못믿을거예요" 라고 합니다.

They are always talking about what God has done, and what I do is nothing, man. It is just a response to this glorious grace that I have received through Jesus Christ.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Respond now to God. Let your walk be in keeping with what you are. God has called you to be His child, that you might in the endless ages to come experience the richness of His grace and mercy and love towards you in Christ.

Now respond to that by living in a manner that is fitting that of a child of God. Live like a child of God.

Don't live like the devil, you did that long enough. Now start living like a child of God, which you are through Jesus Christ. Respond to it.

How am I to live?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십시오. 당신의 인격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고, 닥아오는 끝이 없는 세대에 그의 은혜의 부요함과 자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자세로 삶으로서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마귀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당신이 한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반응을 보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4:2),

I am to live as Jesus Christ.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4:2),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Do you remember when Jesus said,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for I am meek and lowly of heart"(Matthew 28-29)? Now how are we to walk?

In all lowliness and meekness (4:2),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 11:28-29).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Now, this is really the natural response to the real understanding of the grace of God for me, and my unworthiness of it.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의 무가치 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진실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If I am doing my works trip, then involved in the works is the bragging and the boasting and the glorying of what I am and what I have done. But when I realize what God has done for me, what God is offering to me, this glorious grace of God of which I am so totally undeserving and unworthy, the affect that I have is that of lowliness and meekness.

내가 출장을 가게 되면 그때에 일에 종사하면서 나는 나의 직분이 무엇 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고 뽐내고 자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내게 주시는 것과 받을 자격도 가치도 전혀 없는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결과로 내가 가지게 되는것은 겸손해 지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As Paul said, "That God should choose me, less than the least of all of the saints to bestow this abundant glory that I should preach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Ephesians 3:8). That man who truly understands what God has done is humbled by what God has done. The man who has had a true confrontation with God is humbled by that confrontation. Walk 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바울이 말한것 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엡 3:8).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참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의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만남으로 겸손해 집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십시오.

Now I am thinking of a certain TV evangelist who seems to have purchased so much time on television. Some people have come up and asked me what my opinion of him is. Well, from what I have observed, which is not very much, because I have a hard time taking it, if I am commanded as a child of God to walk in lowliness and meekness, if I am commanded as a child of God to walk in love, then these are characteristics that I do not observe. So the whole ministry must come into question.

텔레비죤 시간을 많이 산듯한 한 TV 전도자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내가 본 바로는, 받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리 많이 보지는 않았습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특성을 그에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I am to walk with all lowliness and meekness.

with long-suffering, forbearing one another in love (4:2);

나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여야한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2);

What a glorious way to walk.

Endeavo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4:3).

행하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3)

I am not to be cursing all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FCC and all of the ministers that don't go along with me. "Endeavo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I should be constantly seeking the unity of the Spirit within the body of Christ.

모든 정부 관리들을 저주해서는 안되겠지만 FCC 와 다른 장관들도 내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는것을 항상 추구할것입니다.

Now it is sad to me that man has so divided the body of Christ and built his fences and in some cases block walls. "We are the people, everybody else is false and wrong, we have the truth." They build up these barriers and these walls around themselves.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분열되어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거나 어떤 경우엔 벽을 쌓는 사람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고 틀렸어,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이 장벽을 쌓고 이 벽들이 그들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A few months ago I received a letter where I was invited to speak at a certain denominational meeting. And I got a letter this week after I responded. I

thought, "Well, that is interesting. I will accept that." And so I wrote a letter of acceptance, and I got a letter back this week from the minister who had invited me to speak and he said, "I am awfully sorry, but when I brought up your name, a lot of the ministers were afraid that some of our ministers might be influenced by you. And because you believed in the validity of the gifts of the Spirit, it might draw some of them away. So they decided that they don't want you to speak." Sad.

몇 달 전, 어떤 교단 회의에 와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초청하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답장을 보낸후 이번 주에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그거 재미있는 일이네, 받아 드려야지." 그래서 받아드린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 주에 나를 초청하여 말씀해 달라고 초청했던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꺼냈더니 몇 목사들이 당신의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령의 은사를 미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There is only one body, there is only one Spirit, there is only one hope of our calling; there is only one Lord, there is only one faith, there is only one baptism, there is only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in you all (4:4-6).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화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4-6).

There should be a unity in the body of Christ. And the thing I like about being non-denominational or inter-denominational is that it does give us a comfortable posture whereby we can accept and love and feel free to fellowship with anybody from any denomination who really believes in Jesus Christ. Now, there are some denominations that will not accept the baptism of another denomination.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 교파 혹은 초 교파를 좋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어느 교파의 누구든지 받아 드리고 사랑하고 교제할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가질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의 침례를 받아드리지 않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Some churches that will not accept the baptism of another church. “Oh, you were baptized by them. Well, you will have to be baptized again before we can receive you into membership.” There are some churches that have closed communion. When they pass the broken bread you can't take it unless you are an approved member of that church. Walls by which the body of Christ is divided.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 당신은 그들에게서 침례를 받았군요.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외부 인들에게는 성찬식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찬 예식의 떡을 건네 줄때 그 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그것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런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 놓는 벽들입니다.

“One baptism.” That is, we were all baptized unto Jesus Christ. We weren't baptized unto Paul, or Apollos, or Peter. We really weren't baptized a Baptist, or a Christian church, or a Methodist, or Catholic. We should have been baptized into Jesus Christ, not into a church. Because a church cannot save you. There is only one baptism, and that is the baptism into Jesus Christ. If you were baptized into a church, then I would encourage you to just be baptized into Jesus Christ. “One baptism, one faith, one Lord, one God and Father.”

“하나의 침례”란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받은것 을 말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베드로에게 받은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침례교나 그리스도 교회나 감리교나 카톨릭으로 침례 받은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침례 받은 것이지 교회에게 침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당신을 구원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난의 침례가 있으며 그것은 예수 에게로 침례를 받는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로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에게로 침례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침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니요 주도 하나이며 하나님과 아버지도 하나 이니라.”

But to every one of us is given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4:7).

I love this. What is the measure of grace? The gift of Jesus Christ. And every one of us is given a measure or given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Jesus Christ.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분량을 받았습니다.

Paul said, "If God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much more then shall He not freely give us all things?"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You see, again, when I come to God for my needs, I think, “Oh, I don't know if God is willing to do this much for me.” Well, how much is God willing to do for me? He is willing to send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for me, now do you need more than that?

아시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나의 필요한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이 만큼해 주실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즐겨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도록 그의 독생자도 기꺼이 보내시기 까지 하셨습니다. 그 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것이 무엇입니까?

So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Wherefore he saith, When he ascended up on high, he led captivity captive, and gave gifts unto men. (Now he that ascended, what is it but that he also descended first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He that descended is the same also that ascended up far above all heavens,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4:8-10)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른 은혜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속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4:8-10).

What is he talking about? “The one who has ascended is the same one who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and when He ascended far above all the heavens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They came to Jesus one day and they said, "Show us a sign." And Jesus said, "A wicked and an adulterous generation seeks after a sign, but there will no sign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For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whale, so must the Son of God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그가 무엇에 관하여 마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셨던 그는 땅 아랫 곳으로 내려가셨던 자와 동일한 분입니다. 그가 모든 하늘 위에 높이 오르신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어느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이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When on the day of Pentecost the people were gathered and Peter stood up to preach to them, he identified his subject as Jesus of Nazareth. “A man who proved that He was from God because of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the midst of you, who you,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hat He could be held by it. For the scripture said, ‘Th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ell, neither will you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And we testify unto you that God did not leave His soul in hell, but He has been raised again” (Acts 2:22-32).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을때 베드로가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그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라고 밝혔습니다.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 준비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웠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 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 셧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 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2:22-32).

Jesus, in Luke's gospel chapter 16, said, “There was a certain rich man, who fared sumptuously every day. And there was also a poor man who was brought daily and laid at his gate, full of sores, and the dogs were licking his sores. And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into Abraham's

bosom. More also the rich man died, and in hell he lifted up his eyes, because he was in torment. And he saw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there being comforted. And he said, 'Father Abraham, would you send Lazarus that he may take some water and touch my tongue with it, because I am tormented in this heat.' But Abraham said. 'Son, remember that in your lifetime you had the good things, and Lazarus the evil. Beside that, there is a gulf between us that is fixed, and it is impossible for those that are here to come over there or for those that are there to come over here.' He said, 'If that be the case, then I pray, please send Lazarus back that he might warn my brothers, lest they come to this horrible place.' Abraham said, 'They have the law and the prophets. If they will not believe the law and the prophets, neither would they believe even if one should come back from the dead.'"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얹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Jesus tells us that prior to His death, Hades was separated into two compartments: in one compartment those who were being tormented, the unrighteous; in the other compartment those who were being comforted in Abraham's bosom. For we are told in Hebrews chapter 11, when it lists off these great men of faith in the Old Testament, that they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로서 고통을 받으며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But they saw it afar off and they embraced it, and they claimed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But they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because God has reserved some better thing for us that they apart from us could not come into the perfected state.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이방인이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으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분리되어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없었습니다.

Now, Isaiah tells us that a part of the mission of Christ in chapter 61, to preach the gospel unto the poor, to bind the brokenhearted, and then also to set at liberty the captive and to open the prison doors to those that were bound. So that when the thief on the cross said, "Lord,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remember me," Jesus said,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사야가 이사야서 6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도적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When Jesus died, His Spirit went into Hades, but into that compartment where Abraham was comforting those who had died in faith. As they were awaiting the fullness of time when God would fulfill the promise of sending the Messiah. For they all died in faith, but they could not ascend into heaven because it was impossible that the blood of bulls and goats could put away their sins.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의 영이 음부에 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으나 천국에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숫 소나 염소의 피는 그들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All they did was foreshadow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whereby sins could be put away and man could have access on into heaven. So Jesus preached

to those souls that were imprisoned, and on the third day when He arose again, He led the captives from their captivity. He opened the prison doors to those that were bound. He led them from their captivity, and the graves of many of the saints were opened, and they were seen walking in the streets of Jerusalem after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Matthew 27.

그들이 행한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며 인간이 하늘에 들어갈수 있게 되는것을 미리 예고해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갇힌 영혼들에게 전과하셨으며 제 삼일에 그가 부활 했을때 포로된 자들을 인도 하셨습니다. 옥 문을 여시고 갇힌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포로된 자를 인도하셨으며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는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마 27).

So, “He who has ascended” is the one who, first of all,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In order to open the prison doors to those that were bound, in order to lead those who had by faith been waiting for the Messiah in order to lead them on into glory.

And He gave gifts unto men.

그래서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는 누구 보다 먼저 땅 아랫 곳에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옥 문을 열어 주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식 위하여 땅 아랫곳에 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And to some he gave, apostles; and to some, prophets; and to some, evangelists; and to some, pastors and teachers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4:11);

So He anointed some men to be apostles. He anointed others to be prophets, others to be evangelists, others to be pastor-teachers.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사도가 되게 하려고, 다른 이들에게는 선지자나, 전도자 또는 목사나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Now what is the purpose then of the church? What is the purpose of these men that God has gifted? For years because of my seminary experiences and my exposure to Oswald J. Smith and his missionary conferences, and because of my denominational background, I thought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hurch w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학교의 경험과 Oswald J. Smith로부터 배운 것과 선교 대회와 내 교단적인 배경으로 나는 수년간 교회의 주 목적은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 was always trying to preach evangelistic sermons in order that I might evangelize the world. Because, after all, that, I was taught, was the primary purpose of the church. As the result, the people in my congregations have been exposed to evangelistic preach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Every week they were hearing messages on the importance of receiving Jesus Christ and being born again, the new life that you could have in Christ. Repent, turn your life over to Jesus, surrender your life to Him, and be saved.

나는 세상을 복음화 하려고 항상 전도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대로 그것이 교회의 주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인들은 전도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매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중생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새 생명의 중요성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당신의 삶을 예수께 맡겨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I would oftentimes have extremely powerful evangelistic messages that the Lord had laid on my heart. I mean, I would just have my heart burning with this message because it was so dynamic and powerful it would surely convert the hardest sinner. I would be so excited ready to deliver this powerful message and surely no sinner could resist.

나는 종종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지극히 능력있는 메시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 메시지로 불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역동적이고 강력하므로 틀림 없이 아주 강박한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놓을 거 같았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감격하게 되어 틀림 없이 아무 죄인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I would go to church and there wouldn't be a single sinner in the house. Oh, how frustrating. I would take my frustrations out on the people. If they

would only have been witnessing this week as they should, they would have had some of their neighbors in church with them tonight. "You are a disgrace to God, you are a failure," and I'd begin to beat the sheep that were there. Jesus didn't say, "Peter, do you love Me? Beat my sheep," yet I was. Jesus said, "Do you love me? Feed my sheep." You see, I was so into evangelism that I never took the people beyond that level. I never brought them into the fullness in Christ.

내가 교회에 가면 거기에는 집안에 단 한사람의 죄인도 없을것 같았습니다. 그 얼마나 좌절할 일입니까. 나는 그 좌절감을 사람들에게 풀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땅히 해야할 증거를 했드라면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데려와서 오늘저녁 교회에 함께 있었을 텐데. "당신들은 하나님께 망신입니다. 당신은 실패자 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 있는 양떼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때리라"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고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에 폭 빠져서 그 이상의 수준에 이끌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끌지 못했습니다.

In Hebrews chapter 6, it says, "Therefore, setting aside these first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the repentance from dead works, the baptism, the laying on of hands, let's go on into maturity." I wasn't doing that with the people. Because I thought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hurch w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sn't that what they taught me in seminary?

히브리서 6 장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 갈찌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온 세계를 복음화 하는것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아닙니까?

But then I came across this passage in Ephesians 4 and it transformed my life and my ministry. I found out God didn't call me to be an evangelist. I never felt that He did. I was uncomfortable trying to be an evangelist, but that was the mold that the denomination fit me into. I realized that God called pastor-teachers too and this was the area where I was very comfortable and I loved.

그러나 그때 나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과 목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것을 알아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는 결코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려고 애를 쓸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But the purpose of the church, the purpose of the pastor-teacher was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and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I had been tearing down the body of Christ. I had been beating the body of Christ. I had been driving them away. I should be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the pastor-teacher.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때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몰고 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사와 교사이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into the fully-matured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

(4:13):

I had a whole new philosophy for the purpose of the church. It isn't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but it is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And so, I then began to focus my ministry on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loving the body of Christ, ministering to the body of Christ, strengthening the body of Christ, teaching the body of Christ the Word of God, feeding the body of Christ. As the result, as they began to mature and come into this maturity in Christ, their lives became a witness to the world around them and others came to know and came to find out what was going on. And evangelism was the byproduct of a healthy body.

나는 교회의 목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먹이는 일의 사역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은 성숙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삶이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증거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와서 보고 알고 싶었습니다. 전도는 건강한 몸의 부산물이었습니다.

That we no longer be like children, who are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by the sleight of men, and cunning craftiness, whereby they lie in wait to deceive (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4:14);

There has always been the curse of these weird doctrines that blow through the church. There are always those little sheep who will follow anybody ringing a bell. Not matured. They come with their starry eyes. "Oh, I heard the most wonderful thing the other day. We can all be perfect now in these bodies. Oh, bless God, I am perfect." Oh, help us, God. Children tossed to and fro with every wind of doctrine and slight of men, cunning craftiness. And boy, I mean they are there. What cunning craftiness. These letters that they send out on their computers, cunning craftiness. I mean, they are masters of deceit. They lie in wait to deceive.

그곳에는 교회를 통하여 불어오는 이상한 교리의 저주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곳엔 방울이 울리면 따라가는 그 성숙하지 못한 어린 양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은 반짝 반짝 빛나는 눈으로 와서 "오, 나는 그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는 이 몸으로 지금 완전하게 될 수 있어. 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 아이들은 교훈의 풍조와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이리 저리 밀려 요동합니다. 맏소사, 그런데 그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계교입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로 찍어서 보내는 이 편지들, 얼마나 간사한 계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속이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4:15),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4:15)

That is how the truth should be taught and spoken, in love. Not pounding the truth into people, not ranting and raving,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배우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참된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고함 치지도 말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at we may 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that grow, through the truth of God,]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from whom the whole body is fitly joined together and compacted by that which every joint supplies, according to the effectual working in the measure of every part, making increase of the body to the edifying [or building up] of itself in love (4:15-16).

범사에 그에게 까지 자랄자라 (하나님의 진리로 자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음을 입음으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4:15-16).

Christ the head, and all of us really fit together, joined by the Spirit, made a part of that body, the beautiful body of Christ functioning together, coordinated together by the Spirit coming into the fullness. But we look at the body of Christ today in the world, and it is spastic. No wonder the world isn't interested. You know, the church is so divided, divided over the dumbest things. It is only as we really come to that unity and love that the church will have a powerful witness before the world. Building up itself in love.

그리스도는 머리오 몸의 지체로 만들어진 우리는 모두 잘 맞추워져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함께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아름다운 몸이 되었으며 성령이 조정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십시오. 그것은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것이 이상할게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갈라졌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할때 교회는 세상에 능력 있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합니다.

This I say therefore, and testify in the Lord, that you no longer walk as the Gentiles (4: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 처럼 행하지말라 (4:17),

So we are told, first of all, walk in a way that is fitting as a child of God. Now we are told that we are not to walk as the Gentiles. And that word is used for the heathen. Who walk,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in the vanity of their mind, [or empty headed] because they have their understanding darkened, because they are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because of the blindness of their heart (4:17-18):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4:17-18).

Their hearts are blind, thus they are ignorant. Ignorant of the life of God that is available to man, and they are alienated then from God.

그들의 마음은 눈이 멀었으므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They are past feeling and have given themselves over to lasciviousness, to work all uncleanness with greediness (4:19).

저희가 감각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You are not to walk as the Gentiles who walk in lasciviousness, in sexual impurity, working all uncleanness, akathartes, filthy, and greed is usually the problem behind it.

Today the real problems of the world you can trace back to greed. The greed of man, all of the social ills come back to the greed of man. The exploitation of people, all comes back to the greed, wanting for myself.

당신은 색욕으로 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모든 부정한 것 (희랍어의 akathartes)과 더러운 것을 행하며 배후에 모든 욕심이 가득찬 이방인 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짜 문제를 추적하면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탐욕 사회의 모든 병은 탐욕 다시 말하면 자신을 섬기기에 부족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But that is not what you have learned from Jesus Christ; If so be that you have heard him, and have been taught by him, as the truth is in Jesus (4:20-21):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4:20-21).

What did He teach?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He has taught that love should be the motivating factor behind our lives and behind our actions rather than greed being the motivating factor.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의 동기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 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There are two powerful motivators in the world today that move men. You are moved by one of the two motivators. Men are either motivated by love, or they are motivated by greed.

오늘 날 이 세상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동기중의 하나에 의해 활동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욕심이 동기가 된것입니다.

The man apart from Christ is motivated by greed. You see the results in the world around us. The man who is in Christ is motivated by love and you see the effects within the church, wherever they are following the truth that is in Jesus. What a glorious thing to be around people motivated by love, motivated by the love of Christ. What they do they do in the name of Christ, what they do they do for Jesus Christ, for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사람은 탐욕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나타남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에 의해 움직이며 교회 안에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진리를 따르는것은 사랑의 동기에 의한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케 하기 때문입니다.

And thus, they are giving because they are motivated by love, whereas those that are motivated by greed are only interested in getting. Now, that is not the way you have learned from Christ, but you have learned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된 사람들은 주는 반면에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배운방법이 아니며 우리가 배운것은,

That you should put off concerning the former manner of life the old man, which is corrupt according to his deceitful lusts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4:22);

You are to put him off. Know ye not that the old man was crucified with Christ, that the body of sin should not reign as king over you any longer? Put off that old man, corrupted because of his deceitful lusts.

당신은 그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것과 죄의 몸이 더 이상 너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함을 알지 못하느뇨?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여져가는 옛 사람을 벗으라.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that you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4:23-24).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잔리의 가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4:23-24).

This is the way I am to walk. After the new man, the new nature in Christ, righteousness and holiness.

이 것이 내가 행하여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경건의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을 좇아서 행하여야 합니다.

Wherefore putting away lying, speak every man the truth with his neighbor: for we are members one of another. Now be angry, and sin not (4:25-26):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4:25-26):

There is an anger that is not sinful, that anger at sin, that anger at unrighteousness, that anger at evil, that anger at bigotry.

Jesus, when He came into the temple and saw the moneychangers there, saw the desecration of the house of God, saw the commercialism, was angry. And I think that He is equally angry with the commercialism today within Christianity.

죄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분내는 것이고 불의에 대한 것이며 악에 대한 것이고 완강한 반대에 대해 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오셔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과 상업하는것을 보셨을때 그는 분을 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상업주의에 대해 똑같이 분을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He said, "My Father's house is to be called a house of prayer. You have made it a den of thieves." He drove them out, angry. Again, when He came in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nd there was a man with a withered hand and the Pharisees watched to see what He was going to do, He said to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Stand forth." And He looked upon that Pharisee crowd with anger, because they would because of their narrow bigotry keep this man from receiving the work of God, the healing of his withered hand that day. He looked around upon them with anger. Anger because men through their traditions would hold back the work of God from other men because that is not the way we do it. That is not according to the bylaws of our denomination.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어야 하거늘 너희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분을 내어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다시 주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며 바리새인들도 그가 무엇을 하려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주께서 노하셔서 바리새인드과 무리들을 둘러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좁은 완고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그의 마른 손을 고치시는 일을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셨습니다. 주께서 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There is an anger that is not sinful. “Be angry and sin not. Let not the sun go down on your wrath.” Don't go to sleep at night holding a grudge. It is apt to destroy you during the evening hours.

죄가 되지 않는 분냄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원한을 품고 잠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는 동안 그것이 당신을 해치기 쉽습니다.

don't let the sun go down upon your wrath;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 (4:26-27).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4:26-27).

Or for the devil's work in your life.

So many times we give place, we say, “I have a right,” and we say, “Good, sit there. I have a right to be this way.” Don't give place to the devil.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내겐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또 “좋아, 거기 앉아. 나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 주지 마세요.

Let him that stole steal no more: but rather let him labor, working with his hands the thing which is good, [Notice] that he might be able to give to him that has need (4:28).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4:28).

In other words, the motivation for working is not just to provide for my own needs, but that I might be able to give to someone else that has need. Let him that stole steal no more, but work with his own hands so he can give to the poor, so he has something to provide for their needs.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일을 할 동기는 오직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하며 그들에게 필요한것을 나누워 줄것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Let no corrupt communication proceed out of your mouth, but that which is good to the use of edifying, that it may minister grace to the hearers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4:29).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that we need to really take to heart. There is a form of jesting many times even among believers that is not really proper. Filthy communication, jesting over sexual things, or filthy things. Let no corrupt communication proceed out of your mouth, but that which will build up someone, not that which will tear down someone, not that which will destroy someone else.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합당치 않은 농담 같은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대화, 성적인 것에 대한 농담이나 더러운 것에 대한 농담 들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타락한 대화기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대화가 나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하시키거나 파괴하는 대화가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Grieve not the Holy Spirit of God, whereby you are sealed unto the day of redemption (4:30).

하나님 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말라 그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4:30).

Again, back in chapter 2, He has sealed us with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 possession. Now don't grieve the Holy Spirit. How do I grieve the Holy Spirit? I grieve the Holy Spirit when filthy communication comes out of my mouth, for He is pure. He is holy. I grieve the Holy Spirit when I speak to someone in anger. When I sort of put myself on a pedestal to put others down. That isn'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t is to build others up. Grieve not the Holy Spirit of God whereby you were sealed.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그가 사신 물건의 구속까지 우리의 기업의 담보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그분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더러운 대화가 나올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분은 거룩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어 말할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하시키려고 나 자신을 추켜 올릴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evil speaking, be put away from you, with all malice (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Now, these are the things that grieve the Spirit: bitterness, wrath, anger, clamor, evil speaking, malice.

On the positive,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쓴 뿌리, 분노, 분냄, 소동, 악한 말을 하는것, 악독.

긍정적으로 보면,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you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4:32).

There it is, be y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not hard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by what measure?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you. Remember now the lessons that Jesus taught on forgiveness.

거기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하며 불쌍히 여기며 냉혹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얼마나 해야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용서 해주신것 처럼 해야합니다. 예수께서 용서에 대하여 주신 교훈을 기억 하십시오.

There was a certain man who had a servant who owed him sixteen million dollars and he called him in and said, "Pay me what you owe me." And he said, "Oh, I can't pay you. Give me a little time and I will try." This man went out and caught a fellow servant that owed him seventeen bucks, and he took him by the neck and he said, "Pay me what you owe me." He said, "I am sorry I can't right now. Give me a little time and I will pay you." He said, "No way, you have had it." He took him to court and had him thrown in the debtor's prison.

어떤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은 16 만 달러를 그에게 빚졌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내게 진 빚을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주시면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17달러를 빚진 하인인 친구를 찾아 그의 목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미안하지만 당장은 안돼. 시간을 좀 주면

노력해 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도 안돼.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라고 말하고는 그 큰 법정에 데려가 빚진 사람들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Now the lord who had forgiven him the sixteen million dollar debt called him in and said, "How much did you owe me?" "Sixteen million dollars." "Didn't I just say I forgive you of the debt?" "Yes." "How is it that I hear that you got hold of a fellow servant that owed you seventeen bucks and you had him thrown in debtor's prison because of his debt?" He said, "That is not right."

그리고 나서 16 만 달러를 그에게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얼마를 빚졌었느냐?” “16만 달러입니다.” “내가 방금 너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네가 너에게 17달러를 빚진 하인 친구를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것이 어쩍이뇨?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You see, we are to forgive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us the seventeen million. Who are we to hold these small grudges or debts against each other?

보다시피, 그리스도 때문에 17 만 달러를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처럼 우리는 용서해야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작은 원한이나 빚을 서로 붙들고 있는가?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s forgiven you. This is one of the first scriptures my mother had me to memorize when I was a little boy. Planted in my heart when I was two years old. "Be y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you."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때 내 어머니께서 내게 외우라고 주신 첫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두 살이었을때 그것을 내 마음에 심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When our little girl was about three she was in one of those moods that was insisting that we spank her. Though I was always reluctant to spank them, but it was one of those days when she kept pushing and pushing and pushing, until she gave you no alternative. I brought her in and I sat her down and said, "All right, that is it. I have had it. Now do you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I was going to quote to her Ephesians 6:1,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She said, "Yes, I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I said, "What does it say?" "Be ye kind one to another." I said, "That will work this time but not again." Smart little kids.

내 작은 딸이 세살이었을 때 그 애는 고집을 피어 매를 맞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다른 대안이 없을 때까지 그 아이는 강요하고, 강요하고, 또 강요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앉힌 후 "좋아, 그거야. 진력이 난다. 너는 성경이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을 인용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딸 아이가 "예,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저도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뭐라고 하니?" 라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고 쓰여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하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아이죠?

Oh, what a verse to take and work on this week, to allow the Spirit to work in our hearts with just this verse,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us." What beautiful exhortation.

오, 이번 주에 붙들고 노력하여 이 구절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 하시도록 해야할 구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권고입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and help us not to walk in a manner that becomes a son of God. That we might, oh God, put off the old man with his desires and his affections, and that we might put on that new man after Christ.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태도로 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는 그의 욕망과 정욕을 가졌던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